

시험불안도에 있어서의 한국고등학생의 심리적영향요인 연구

권 혁 정*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결 론

I. 서 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험이란 제도는 우리사회의 대다수 인원의 일시적인 선택과 평가의 의미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회내에서의 선택과 선발의 경우에 사용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각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특별히 시험은 장래의 방향을 결정해야할 시기의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에 그 결과가 주는 인생의 중대성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시험치는 상황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불가결한 과정이 되었으며 각 개인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정이나 발달 과업이 되었다.

그러나 시험치는 동안의 상황적, 심리적 영향은 수행능력과 수행결과에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는데, 때로 부진한 시험결과와 원인으로서는, 또 성공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시험불안도 개념을 들 수 있다(Hambree, 1988). 시험불안이란 시험을 치르는 특수한 평가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인지적 불안의 한 형태로 정의내려질수 있다. 듀섹(1980)은 시험불안도란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것이 합쳐진 불쾌한 느낌이나 감정으로 공식적인 시험을 치루는 데 혹은 평가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바 있다. 근래에 들어 리벌트와 모리스는 시험불안도를 worry와 emotionality로 나누었는데, worry는 자신의 과업수행에 관한 염려에 대한 인지적인 표현을 의미하며, Emotionality는 시험상황에 대한 발한작용, 빨라진 심장박동등과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같은 자율 신경적인 반응이라고 두요인에 대한 구분을 하였다.

이러한 불안들은 개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지 능력의 표출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런 불안적 증상이 과업의 수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능력을 위주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20여년동안 시험불안과 과업수행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그들의 연구의 결과 시험불안은 중요한 시험의 양상을 띤 환경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Tobias, 1980). 과업수행과 시험불안과의 관계에 관한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외에도 시험불안의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는 그것을 해결하며 완화시키려는 임상적인 노력과 함께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다른 노력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구별하면 이제까지의 시험불안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네가지 접근 방향을 가지고 이루어 졌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첫번째 접근은 시험불안도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에 관해 알아봄으로서 내재된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노력이다. 두번째 접근은 시험불안도와 연결된 성격요인 능력요인 적성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또는 가족구성원적인 요인등과 같은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를 상관적인 혹은 인과적인 관계에서 규명하고자 한 노력이다. 세번째 접근은 시험불안도를 임상학적인 측면에서 그의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시도를 말할 수 있다. 네번째 접근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시험불안도 수준을 각 문화별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이해를 광범위한 사회적인 영향권 안에서 비교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이러한 네가지 접근은 그의 시험불안에 관한 이해와 연구에 많은 공헌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시험불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명에 관해서는 부족한 연구에 의해서 아직도 우리는 해답들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족한 문헌에 기여하고 그에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몇가지 가설과 문제 제기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가지는 첫번째 질문은 과연 시험불안도가 그 나라의 문화적 차이나 대학입시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는가 라는 것이다. 두번째 본 연구가 가지는 관심은 시험불안도의 그 자체에 영향을 주게되는 결정인자 혹은 상관인자로서 학교와 가족이 주는 영향요인 그리고 심리적으로인에 관한 요인들의 확인이다.

이러한 자료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자료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학생의 시험불안도 수준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문주, 1984)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높은 시험불안도에 관한 가능한 설명은 우리나라 특유의 두가지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따라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대학교의 입시제도와 연관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가치관 및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연관이 있을 듯 싶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과연 시험불안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연구되고 분석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시험불안도를 한국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정학교에 연결된 변인과 심리적인 결정인자를 파악해 내고 또한 그들을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학생들의 시험불안도에 있어서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관적이고 인과적인 관점에서, 세가지의 카테고리가 변인들에 대하여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들 세가지 변인은 학교변인, 가정변인 그리고 심리적인 변인이며 이들변인은 관계가 서로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불안도에 관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시험불안도는 부모자식간의 양육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에 공통된 일치를 보고 있다(Hill, 1972, Sarason, Davidson, Lighthall, Waite & Ruebush, 1960). 이들 학자들은 불안한 아이들은 시험치는 상황을 주로 그들이 경험하였던 가족간의 교류의 맥락에 의거해서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부모 아이들에게 대한 태도가 매우 비판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아이들의 측면에서 그들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은 더욱더 강박적이고 불안 유발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불안 반응은 학교내의 권위적인 인물들 교사나 교장등에게로 전이 되어 진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연구들은 부모자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학교의 권위적인 상황이 학생들의 시험불안도의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관점에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Desek, 1980 ; Hill, 1972 ; Sarason, et alt. 1960).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변인들이 시험불안도에 영향을 주는 지에 관해 첫번째 질문으로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두번째 질문은 시험불안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결정인자의 연구이다. 많은 선행되어진 연구들은 성차 sex, 외제적 통제

externality, 대처방식 coping style, 그리고 방어력 defesiveness이 시험불안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많은 연구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시험불안도를 보여 준다고 보고되었고, 시험불안도와 통제소간에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시험불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제적 통제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Lafcaurt, 1982). 대처방식과 불안과의 관계는 Lazarus(1984, 1980) 등등에 의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졌는데 불안도의 연구분야에서 대처방식이란 스스로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여러가지 적응적인 행동 측면으로 이야기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안자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구사하는 여러가지 행동전략 양식이므로 대처방식 Coping이라는 의미에서는 꼭 노력의 성공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따라서 항상 긍정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본연구에서는 새로이 사용되는 용어로 '대처강렬도' coping intensity가 사용되는 데 이것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대처방법의 수를 나타내는 지수로 쓰인다. 따라서 시험불안도와 대처강렬도간의 관계는 정적인 것이며 강렬하고 다양한 여러가지 대처방법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다수의 방법의 사용으로 인해 불안도를 내리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심리적으로 더욱더 고통을 주므로 오히려 더 높은 시험불안도의 수준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가정으로 출발한다. 방어력 defesiveness은 문제의 부정, 부인 또는

불쾌한 감정의 부정 내지 부인을 말하는데 연구들에 의하면 시험불안도와 매우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험불안도의 수준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예측인자로 연구되어졌다 (Sarason, 1966).

본연구는 다음의 심리적 변인들을 가지고 이제까지 연구된 문헌들에 의거하여 가설된 경로 분석 모델은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음 그림1과 같다<그림 1 Figure 1>. 본 그림에서와 같이 성차는 시험불안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한 시험불안도와외의 관계는 외재적인 통제력과 방어력 그리고 대처강렬도에 대한 영향에 의해서 매개된다. 외재적인 통제력은 또한 시험불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것의 효과는 방어력과 대처강렬도에 의해서 매개된다. 그리

고 대처강렬도등 시험불안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방어력에 의해서 매개된다. 그리고 방어력은 시험불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같은 경로분석의 도표는 선행되어진 문헌연구에 근거해서 가정되었다.

1. 연구목적

광범위하게 본연구의 목적은 첫번째로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간의 시험불안도의 수준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구의 두번째 목적으로 본 연구는 시험불안도에 연관되어 있는 잠재적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문화적인 변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 심리적인 변인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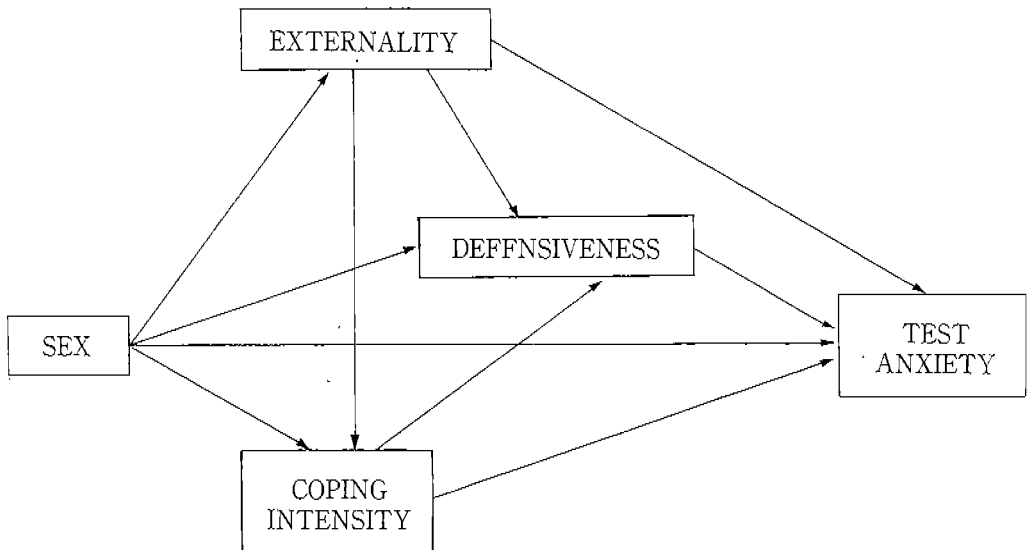


FIGURE 1 Casu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est Anxiety

도 연구되었는데 집단 문화적인 요인으로써 가족 그리고 학교교육 환경이 연구되었다. 개인적 심리적인 요인으로서는 성차, 외제적인 통제성, 대처강렬도 그리고 방어력이 포함되었다. 본연구는 시험불안도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써 문화적인 변인과 그리고 심리적인 변인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두가지 목적은 경로분석 모델에 의해서 설명될뿐만 아니라 몇개의 연구 가설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2. 연구가설

- 1) 미국의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한국학생의 시험불안도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 2) 한국학생과 중국 고등학생과의 시험불안도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 3) 한국학생과 중국학생과의 시험불안도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 4) 학교에 대해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식하면 할 수록 더 높은 시험불안도 수준을 가질 것이다.
- 5)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 수준은 높은 시험불안도 수준을 가지고 올 것이다.
- 6) 가족간의 관계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적일 수록 더 높은 시험불안도 수준을 가질 것이다.
- 7) 대학교 입시시험 이 학생들의 불안도를 높인다는 가정하에 대학교 입시시험 치르려는 학생은 치루지 않으려는 학생보다 시험불안도가 높을 것이다.

다음은 경로분석에서 나온 가설이다.

- ㄱ.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욱 더 높은 외적통

제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욱더 방어적일 것이다.
- ㄷ.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욱더 높은 대처강렬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 ㄹ.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욱더 높은 시험불안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 ㅁ. 높은 외적통제성은 높은 대처강렬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 ㅂ. 높은 외적통제성은 높은 방어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 ㅅ. 높은 외적통제성은 높은 시험불안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 ㅇ. 높은 대처강렬도는 낮은 수준의 방어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 ㅈ. 높은 수준의 대처강렬도는 높은 수준의 시험불안도와 연관이 있다.
- ㅊ. 방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시험불안도의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대상

서울시 및 근교를 포함한 537명의 학생들이 이연구에 참여하였다(남자 284명, 여자 253명). 그들의 학년 단위는 고등학교 1학년이 195명 2학년이 211명 3학년이 230명이었다. 실시는 수업시간중에 학급별로 무선할당식으로 배분되었으며 걸린 시간은 평균 50여분이었다.

2. 연구설계

한국학생들의 점수와 다른나라학생들의 점수

를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중국학생의 시험불안도 점수가 수집되었다. 미국학생의 점수로서 Spielberger의 자료, 그리고 Hocever & El-Zahhar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중국학생들의 시험불안도의 점수를 한국 학생과 비교하기 위하여 Rocklin과 Remin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또한 일본학생들의 시험불안도 수준을 한국학생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Iwawaki와 Araki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연구설계는 비 실험적인 상관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non-experimental correlational design).

3. 검사도구

Test Anxiety Inventory(TAI)가 시험불안도를 재는 데 사용되었다. TAI는 20문항의 자기 보고서적인 심리검사지로서 Spielberger(1980)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 문항은 일반 불안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두개의 subscale을 물어보는데 worry subscale은 테스트가 일어나는 당시의 인지적인 근심과 걱정과 관련 영역을 물어보고 emotionality subscale은 신체 및 신경 반응적인 영역을 질문하는 것이다.

Locus of control Measure(LCM)는 Rotter's에 의해 외적 통제성과 내적 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Rotters에 의하면, 외적 통제성은 개인에게 있어서 사건을 이해하는데 운과 운명, 우연 혹은 다른이의 힘의 콘트롤하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인 반면 내적 통제성은 개인적인 계기에 의해서 사건의 발생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3개의 문항이 Internality와 externality로 두개에 대한 대담으로 나누어져 있다.

방어력을 재기 위한 검사지로서 사용된 defensiveness scale(DSC)은 Sarason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이것은 불안, 적대감 그리고 부적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는 경향을 재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문항은 모두 27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토탈 점수가 방어력을 재는 반응척도로 쓰인다. 높은점수는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책정되었다.

대처강렬도를 재기 위한 도구로써 Lazarus가 만든 ways of coping checklist(WCC)가 사용되었다. WCC는 보통 상황에서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을 재는 것으로 여덟가지 Subscale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 중심적인 대처, 희망적인 생각, 고립, 사회 수용 추구, 긍정적인면 추구, 자기비난, 긴장완화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46문항이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이 검사지를 사용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의 예로서 시험치는 상황을 주었다.

Traditional Family Ideology Scale(TFIS)는 가족의 권위주의적-민주주의적 지향을 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도구는 다섯가지 요인을 가지고 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통성예의 고수, 권위적인 것예의 복종,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예의 차별화, 규율과 전제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등을 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Parent Academic Expectation Scale(PAES)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문성취적인 기대를 재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 검사의 문항은 모두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의 척도는 1에서 5까지 나와있다.

School Description Inventory(SDI)는 각 학생들이 그들의 학교에 관해서 인식하는 분위기

에 관해서 재기위해서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경직된 분위기 및 전제주의에 관해 물어보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가지의 요인이 측정되는데 권위의 위계질서, 학교분위기의 인간성, 규율과 법칙, 학교의 전문성, 통제의 중심소재,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재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피험자들에게 그들의 성, 학년, 종교,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과 수입,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여부, 피험자의 형제 순위, 지능과 성적을 알아보았다.

4. 통계분석

Nie, Hull, Jenkins, Steinbrenner와 Bent (1985)가 만들어 낸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위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우선적으로 중앙집중 경향치등의 기술 통계적인 분석이 피험자들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몇개의 티 검증이 각각의 문화권에서의 시험불안도의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재기위하여서 실시되었고 한국학생의 내재되어진 시험불안도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요인분석을 oblique rotation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이 위에 나열된 몇몇의 연구 가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분석되었으며, 경로분석이 Joreslog와 Sorbom에 의해서 고안된 LISREL VII에 의해서 분석되었으며, 우선적으로 LISREL sub-model 2 ananalysis가 직접적으로 측정된 구조관계간의 변인을 재기위해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측정오차(1-alpha coefficient)를 조정하기 위해서 LISREL analysis가 다시 분석되었고 그에 대한 구조적 모수치가 다시 조정되었다.

II. 연구결과

1. 변인들에 관한 기술적 설명 및 신뢰도

우선적으로 몇개의 사회통계적인 변인이 피험자들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성별, 학년, 연령, 순위, 종교,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부모의 학력등이 분석되었다. 그결과는 다음의 표1에 나와있다.

〈표 1〉 한국피험자들의 사회인구적인 조사빈도표

변 인	카테고리	빈도	퍼센트
성 별	남	278	53.7
	여	240	46.3
출생순위	외동딸·아들	32	6.0
	장남 및 장녀	149	28.1
	막내	226	42.6
	둘째	78	14.7
	세째	43	8.1
	기타	2	.4
종교	불교	94	18.7
	카톨릭	95	19.0
	유교	2	4
	개신교	84	16.7
	기타	10	2.0
	무교	218	43.3
학년	1학년	195	36.4
	2학년	111	20.7
	3학년	230	42.9
부의 교육정도	고졸	210	40.3
	대졸	161	30.1
모의 교육정도	고졸	242	45.1
대학입시시험을	치룬다	358	66.9
치루는 결정여부	치루지않는다	177	33.1

Traditional Family Ideology Scale(TFIS), The School description Inventory(SDI),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Questionnaire(PAEQ)에 의해서 가족변인들이 측정되었다. 또한 심리적인 변인으로써 Locus

of Control Measure(LCM), Ways of Coping Checklist(WCC), Defensiveness scale(DSC)가 측정되었다. 그들 검사에 관한 통계치와 신뢰도에 관한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2>에 나와 있다.

<표 2>

TAI의 통계치

	Mean	SD	Min	Max	Alpha
TAI total	42.56	10.71	20	80	.90
Worry	15.18	4.42	8	32	.79
Emotionality	17.06	5.03	8	32	.84
PAES	21.98	3.78	8	32	.68
TFIS	4.63	7.32	-23	22	.60
SDI	26.47	5.03	9	40	.60
LCM	10.78	3.32	1	21	.60
DSC	8.26	3.54	0	21	.61
WCC	33.78	8.42	0	57	.81

종속변인으로써 TAI 실시결과에 따른 각 subscale과 그외의 토탈 점수에 관한 결과는 <표 2>에 있다. 한국학생의 총 평균점수는 42.56이고 또한 토탈 신뢰도는 .90이었다.

2. Test Anxiety Inventory(TAI)에 있어서의 평균간의 비교

연구의 첫번째 관심은 우선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시험불안도 수준의 상대적 위치가 어떠한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학생의 시험불안도 점수가 한국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되었다(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이미 수집되어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T-test가 그룹간의 비교에 사용되었으며 각 subscale과 토탈점수간의 차이가 비교되었다.

미국과 한국과의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학생과 일본학생과

의 점수간의 비교도 또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다(일본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점수밖에 구할수 없었기에 여학생만의 비교를 하였다).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과의 시험불안도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평균비교의 분석의 결과들은 <표> 3, 4, 5에 각각 나와 있다.

<표> 3, 4, 5에서 보듯이 t-test의 결과는 한국 학생들과 일본, 미국, 중국 학생들간의 시험불안도에 있어서 점수가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3. 한국학생에 있어서의 시험불안도에 나타나는 요인 분석

또한 TAI가 문화권 사이에 비교되었기에 요인분석을 해봄으로써 한국 학생들에게도 다른 서구 문화권에서 찾아볼수 있는 두가지 요인 emotionality와 worry를 찾아볼수 있는지 알

〈표 3〉

미국학생과 한국학생의 시험불안도 비교

	USA Sample 1		USA Sample 2		Korea		Korea Sample 1	Korea Sample 2
	141		1,181		514			
	M	SD	M	SD	M	SD	t	t
TAI Total	41.1	12.1	43.3	13.2	42.6	10.7	1.45	1.05
Worry	15.4	5.1	16.3	5.6	15.2	4.4	.08	4.04*
Emotionality	17.0	5.2	17.8	5.7	17.1	5.0	.13	2.55*

*P<.05.

Source : Sample 1 from Hocever & El-Zahhar(1988), Sample 2 from Spielverger(1980)

〈표 4〉

중국학생과 한국학생의 시험불안도 비교

	Korea 236		China 592		Korea vs. china
N	M	SD	M	SD	t
TAI Total	44.6	10.6	45.7	13.6	1.4
Worry	15.9	4.5	17.1	5.8	4.6*
Emotionality	17.9	4.9	18.9	5.9	3.9*

*P<.05.

〈표 5〉

일본학생과 한국학생의 시험불안도 비교

	Korea 236		Japan 523		Korea vs. Japan
N	M	SD	M	SD	t
TAI Total	44.6	10.6	43.6	11.7	.097

*P<.05.

아보았다. 요인의 분석에는 Principal component extraction method와 Oblique rotation method가 사용되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은 〈표 6〉에 있다. 두개의 요인이 모두 eigenvalue가 1을 넘었고 한 요인은 7.98 그리고 다른 요인은 1.24이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본연구의 한국 학생에게서는 대부분 다른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worry와 emotionality는

구별되지 못하였다. 일본학생들의 경우도 역시 두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한국학생의 경우도 일본의 결과와 일치된다. 그러나 본연구는 worry와 emotionality 대신 다른 요인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표〉 7과 8에 나타나 있다.

즉 첫번째 요인에서 시사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시험’에 관한 요인이었고 따라서 중요한 시험을 언급하는 항목들은 다른 덜 불안한 시

<표 6>

TAI Rotated Factor Matrix

Item	Subscale W/E	Factir 1	Factir 2
TAI 18	E	.79447	
TAI 15	E	.78185	
TAI 16	E	.78069	
TAI 13	—	.68490	
TAI 14	W	.63304	
TAI 8	E	.62841	
TAI 4	W	.61669	
TAI 17	W	.57978	
TAI 20	W	.53910	
TAI 12	—	.51568	
TAI 19	—	.47372	
TAI 10	E	.46106	
TAI 6	W		.70248
TAI 3	W		.61756
TAI 7	W		.58427
TAI 5	W		.54089
TAI 9	E		.51640
TAI 1	—		.50827
TAI 2			.44010

W=Worry E=Enotionality

<표 7>

factor 1-중요한 시험

Item	
TAI 18	중요한 시험도중에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린다.
TAI 15	중요한 시험을 치를때면 크게 당황하게 된다.
TAI 16	중요한 시험을 보기전에 걱정을 심하게 한다.
TAI 13	중요한 시험기간 중에는 너무 긴장해서 소화가 잘 안된다.
TAI 14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동안 좌절감을 느낀다.
TAI 8	중요한 시험을 치를때는 안절부절하게 된다.
TAI 4	중요한 시험때는 몸이 굳어버린다.
TAI 17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한다.
TAI 20	시험중에 너무 불안해서 내가 알고 있는것도 잊어버린다.
TAI 12	시험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TAI 19	시험을 다본후에도 계속해서 시험본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TAI 11	시험을 치르는동안 나는 평평히 긴장되어짐을 느낀다.
TAI 10	시험점수를 확인하기 직전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표 8〉

factor 2—중요하지 않은 시험

Item	
TAI 6	시험공부를 열심히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각이 혼란에 잠긴다.
TAI 3	시험점수에 대한 생각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루지 못한다.
TAI 7	시험을 잘못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시험볼때 집중이 안된다.
TAI 5	시험을 치루는 동안 과연 내가 학료를 잘 마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TAI 9	시험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도 몸이 초초해진다.
TAI 1	나는 시험치를때 자신있고 편안하다.
TAI 2	나는 시험치를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든다.

험들과 연관된 항목이나 사항들과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한요인에 구별되어 있었다. 물론 이 항목들은 모두 worry와 emotionality와 서로 섞여 있었다.

4. 시험불안도에 있어서의 경로 분석

시험불안도에 있어서의 경로분석에 심리적인 변인이 들어갔으나 가족변인과 학교변인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중다회귀 분석이 가해졌다. 따라서, 중다회귀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면 아무리 그변인과 시험불안도간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때에는 그변인의 경로모델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해석 경로분석에 넣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적으로 각변인의 상관표는 다음 〈표 9〉에 나와 있다.

실험적인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10〉에 나와있다. 단지 다섯개의 변인(심리적인 영향 변인을 포함함)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4, 가설 5, 가설 6은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심리적 변인에 관한 앞에서 진술한 경로분석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본연구에서는 LISREL

VII(Joreskog & sorbom, 1989)가 사용되었다. 우선적으로 Lisrel sub-model-2 ananlysis가 직접적으로 관측된 변인간의 구조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재어졌는데 이것은 경로분석에 있어서의 회귀분석과 같다. 그러나 이 분석에 있어서의 변인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관측된 것으로 재어졌으므로 측정오차는 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측정오차를 정확히 재기위한 LISTREL 분석이 다시 행해졌다. 그 결과는 〈그림 2 Figure 2〉에 나와있다.

결과에서 보듯이 성과 방어력간의 연관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3.38$, $p=0.00$)성과 대처강렬도는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2.02$, $p=.03$) 더불어 시험불안도와 성과의 연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2.169$, $p<0.05$). 또는 외재적 통제성과 대처강렬도간의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3.42$, $p=.00$) 그리고 시험불안도와도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다 ($t=2.00$, $p<.05$). 따라서 외재적 통제성은 시험불안도에 대처강렬도에 간접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강렬도와 방어력사이의 관계는 부적의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보여졌다 ($t=-2.86$, $p=$

〈표 9〉

변인간의 상관표

	YEAR	TFIS	SDI	PEA	LCM	DSC	WCC	SEX	EXAM	TAI
	1.00	-0.04	-.08	-.10	.11	-.17	.09	-.79	.01	.15
YEAR	P=.	P=.34	P=.08	P=.03	P=.03	P=.00	P=.06	P=.00	P=.91	P=.00
TFIS	-.04	1.00	.00	.15	-.11	-.16	.22	.03	.11	.06
	P=.34	P=.	P=.94	P=.00	P=.02	P=.00	P=.00	P=.58	P=.02	P=.18
SDI	-.08	.00	1.00	.00	-.13	.04	-.17	.00	-.07	-.06
	P=.08	P=.94	P=.	P=.97	P=.01	P=.37	P=.00	P=.95	P=.11	P=.19
PEA	-.10	.15	.00	1.00	-.07	-.08	.06	.18	.30	.06
	P=.03	P=.00	P=.97	P=.	P=.14	P=.10	P=.19	P=.00	P=.00	P=.24
LCM	.11	-.11	-.13	.07	1.00	-.08	-.16	-.08	.07	.17
	P=.03	P=.02	P=.00	P=.14	P=.	P=.08	P=.00	P=.08	P=.15	P=.00
DSC	-.17	-.16	.04	-.08	-.08	1.00	-.16	.17	-.04	-.27
	P=.00	P=.00	P=.37	P=.10	P=.08	P=.	P=.00	P=.00	P=.45	P=.00
WCC	.09	.22	-.17	.06	.16	-.16	1.00	-.11	.21	.34
	P=.06	P=.00	P=.00	P=.19	P=.00	P=.00	P=.	P=.02	P=.00	P=.00
SEX	-.79	.03	.00	.18	-.08	.17	-.11	1.00	-.01	-.19
	P=.00	P=.58	P=.95	P=.00	P=.08	P=.00	P=.02	P=.	P=.77	P=.00
EXAM	.01	.11	-.07	.30	.07	-.04	.21	-.01	1.00	.24
	P=.91	P=.02	P=.11	P=.00	P=.15	P=.45	P=.00	P=.77	P=.	P=.00
TAI	.15	.06	-.06	.06	.17	-.27	.34	-.19	.24	1.00
	P=.00	P=.18	P=.19	P=.24	P=.00	P=.00	P=.00	P=.00	P=.00	P=.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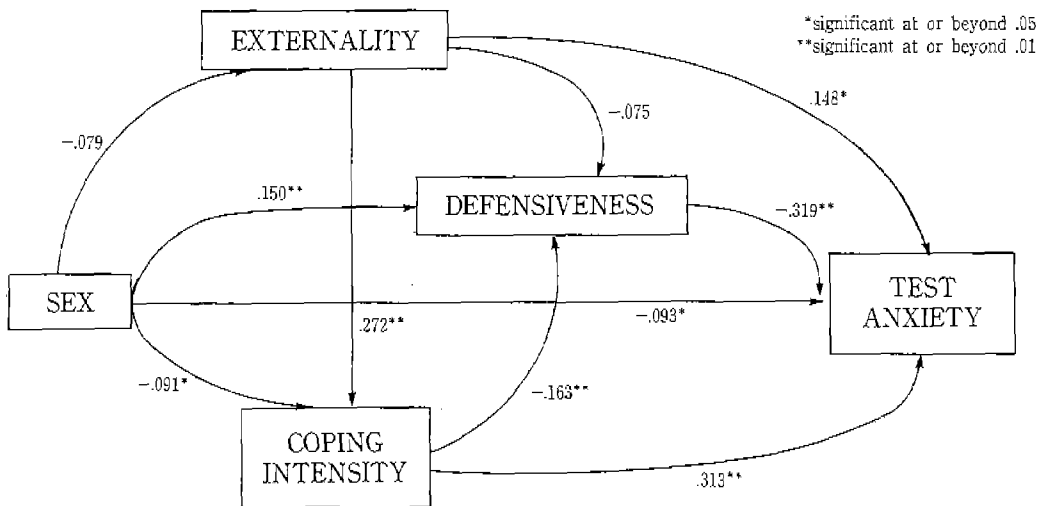


FIGURE 2 Path Analytic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est Anxiety(after error attenuation)

0.00). 또한 대처강렬도의 시험불안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5.70$, $p<.00$). 따라서 대처강렬도는 시험불안도에 간접적 직접적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다. 방 어력과 시험불안도간의 관계도 유의미한($t=-4.388$, $p=0.00$)으로 나타났다.

〈표 10〉 실험적인 중다회귀 분석표

변인	B	Beta	T	유의미T
TFIS	-.047	-.033	-.74	ns
SDI	.026	.090	.29	ns
PAES	0.17	.006	.13	ns
LCM	.324	.092	2.11	0.0835
DSC	-.635	-.203	-4.64	.000
WCC	.354	.250	5.50	.000
SEX	-2.937	-.139	-1.98	.048
시험결정	3.937	.173	3.84	.001
학년	-.262	-.022	-.32	ns

I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의 요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 본연구는 한국학생들의 시험불안도의 점수는 미국, 일본, 한국과 비교해 보았을때 중요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와 입시제도의 심각한 경쟁에 의해서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진 불안도 수준은 예상과는 달리 서구 여러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일본, 중국이라는 비슷한 문화적 환경과 비슷한 조건의 치열한 입시제도를 가진 나라와 비교를 했을때에도 그들의 점수와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예상해 왔던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으로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

해 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시험불안도의 발달적 성향이나, Manley & Rosemier(1972) 등은 시험불안도는 중학생의 시험불안도가 고등학생에게서 보다 더 높음을 즉 저학년으로 갈수록 불안도의 수준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이유로써 학교체제에서의 덜 익숙함 그리고 부적응적 상황이 저학년일수록 높은 시험불안도를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고등학교에 들어서서는 엄격한 학교체제, 그리고 제한된 자율성 등에 학교에서 익숙한 적응을 보이게 됨으로써 또한 시험제도에 대해서도 적응을 보이기 때문에 불안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보았다. 예전의 연구의 경우가 중학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따라서 Manley & Rosemier의 설명도 가능할 수 있다.

연결된 가능한 설명은 시험의 익숙성 *test familiarity*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번 치루어진 익숙성이 시험의 불안도의 수준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학생들의 경우에 잦은 시험의 결과 이미 시험을 치는 것은 일상화가 되어져 있으므로 습관화되어진 시험치는 일상화가 시험불안도의 level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요점으로 학교 및 가정변인의 가설들의 검증을 들 수 있다. 가설 4,5,6중에서 어떤 가설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변인들 즉 학교의 전제주의적인 태도, 부모의 학생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리고 전제적이고, 비민주적인 가정분위기는 시험불안도 수준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연구의 결과 나타났다. 이는 이제까지의 문헌들의 결과들과 매우 반대되는 것으로 가능한 대안적인 추측이 나올 수 있으나 아마도 본 연구의 방법론인 질

문지법상의 한계로써 정확히 결과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믿어지며 따라서 다른 연구방법론을 통한 재검증이 시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위의 가설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준다. 사회적 지지도 *Social desirability*란 질문지의 대답에 정확한 사실보다는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바람직한 대답을 하려고 하며 또한 그러한 사실들이 그들의 대답속에 반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 대해서도 위의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하여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가설 7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3.84, P=.001; r=.24, p=.00$). 따라서 대입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이 더욱더 높은 수준의 시험불안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또한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는데 El-Zahhar, Hocevar의 연구에 의하면 브라질 이집트 학생들의 경우 유사한 높은 수준의 시험불안도를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이들 나라도 또한 매우 치열한 입시경쟁 제도와 수준을 가지고 있음은 한국과 유사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번째로, 본 연구에서 찾아보았던 요인분석에 의한 중요한 시험에 대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시험에 대한 두가지 태도를 들을 수 있다. 즉, 잦은 시험의 수행의 결과 학생자체의 중요한 시험인지 중요하지 않은 시험인지의 인지의 결과가 시험불안도의 수준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험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시험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른 시험불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여러번 잦은 시험실행의 결과 혹은 단 한번의 수행으로 결정되는 특수한 입시제도의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네번째로 시험불안도에 관한 경로분석의 결과가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적으로 여학생의 경우가 시험불안도 수준이 남자들보다 높았고, 또한 여학생들이 적절한 소수의 대처방식보다는 많은 수의 적합하지 않은 대처방식으로 시험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남자들의 경우 더욱더 불안도에 대해서 방어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불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남자 여자간의 스테레오 타입 되어진 성역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외재적 통제에 있어서도 외재적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험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생의 사건을 자기 통제 밖에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시험불안도가 높았다. 외재적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안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더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피험대상자들이 청소년이라는 것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체계화되고 정해진 대처방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자구책으로 여러가지 대처방식을 사용하는것 같다.

다섯번째로서의 특징은 정해지지 않은 비효율적인 다양한 대처방식은 시험불안도의 수준을 올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험불안등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식의 훈련 및 시험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시험준비 전략의 훈련 *test taking strategy*는 청소년의 시험에 대한 부담과 불안도를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 시험불안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한 시험치는 전략훈련 그리고 적절한 대처방식의

훈련(Tobias, 1986, Tryon, 1980) 등이 이 시기의 청소년 학생들에게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학생의 시험불안도에 있어서 관계되어지는 변인들간의 관계들을 인과적인 측면, 혹은 상관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였으므로 성격상 비실험적인 연구가 되었으므로 자기보고서적인 질문지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

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에 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인과관계를 따지는 실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어진다. 특별히 본 논문의 '대처강령도'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또한 시험불안의 대처양식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또한 임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 고 문 헌

- Block, J.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Culler, R., & Holahan, C.(1980), *Test anx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effects of study related behavio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 16-20.
- Deffenbacher, J.L.(1978), *Worry, emotionality and task-generated interferences in test anxiety: An empirical test of attentional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248-254.
- Dustin, D.S.(1971), *Some effects of exam frequency* Psychological record, 21, 409-414.
- Eccles, J., Midgley. Co., & Adler. T.(1984), *Grade-related changes in the school environment: Effects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J. Nicholls(Eds.) Advances in motivation(pp.283-331). Greenwich, CT: JAI press.
- EL-Zahhar, N., Hocevar, D., & De Mello, M. (in press). *Cultural and sex differences in test anxiety and anxiety: Egypt, Brazil and USA*. Anxiety research.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 A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os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839-852.
- Epstein, S.(1972), *The nature of anxiety with empathies upon each relationship to expectancy*. In C.D. Spielberger(Ed.), Anxiety: the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Vo2, pp.55-70). NEW york: Academy press.
- Guida, F & Ludlow, L.(1989), *A cross-cultural study of test Anxie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178-190.
- Hembree, R.(1988). *Correlates, causes, effects and treatment of test anxie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8, 47-77.

- Hocevar, D. & El-Zahhar, N.(1988), *Arousal trait anxiety and the worry and emotionality components of test anxiety*. Anxiety research, 1, 99-113.
- Iwawaki, S. & Araki, N.(199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apanese form of the test anxiety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 Joreskog, K., & Sorbom, D.(1989), *LISREL: analyse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Chicago; International educational services.
- Lefcourt, H.M.(1982), *Locus of control: current trends onf theory and research*.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O'neil, Jr. H., Baker, E.L., & Hawkins, J (1990), *Final report of collaborative research on anxiety*. Unpublished manuscript.
- Rocklin, T. & Ren-Min. Y.(1989), *Development and adaptaion of the Chinese test anciety inventory: A research note*. In R. Schwarzer, H.M. van der Ploeg, & C.D. Spielberger(Eds.) *Advances in test anxiety research*(Vol. 6, pp.245-251).
- Schwarzer, C. & Kim, M.(1984), *Adaptation of the Korean form of the Test anxiety inventory: A research note*. In H.M. van der Ploeg, T. Schwarzer, & C.D. Spielberger.(Eds.) *Advances in test anxiety research*(Vol. 3) (PP.277-282)
- Sarason, I.G.(1986), *Test anxiety, worry, and cognitive interference*, In R.Schwrazer (Ed.), *self-related ognitions in anxiety and motivation*(pp19-34). Hillsdale, N.J.: Erlbaum.
- Tobias, S.(1986), *Anxiety and cognitive processing of struction*. In R.Schwarzer (Ed.), *self-related cognition in anxiety and motivation*(pp.35-53).
- Tryon, G.(1980),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test anxie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 343-373.
- Wigfield, A. & Eccles, J.(1989), *Test anxiety in elementaty secondary school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ist, 24. 159-183.